

# 우즈베키스탄 에너지·인프라 동향 (2022.8월)

## 1. 주요 통계지표

### □ 에너지생산 및 증감률(전년동기비) \*출처: 국가통계위원회

- 전력(십억kWh):('21.7월) 40.3 → ('22.7월) 40.0(△0.7%) ('21년: 70.1)
- 가 스(bcm):('21.7월) 30.6 → ('22.7월) 30.3(△0.9%) ('21년: 53.8)
- 석 유(천톤):('21.7월) 1,228 → ('22.7월) 1,210(△1.4%)(※가스콘덴세이트 포함) ('21년: 2,098)
- 석 탄(천톤):('21.7월) 2,738 → ('22.7월) 2,939(6.9%) ('21년: 5,054)

### □ 에너지가격 및 증감률(전년동기비) \*출처: (전기) 우즈베키스탄국가전력망공사, (가스, 가솔린, 디젤) 우즈베키스탄석유가스공사

- 전 기(UZS/kWh):('21.8월) 450 → ('22.8월) 450(0%) (※산업용) ('21년: 450)  
( '21.8월) 295 → ('22.8월) 295(0%) (※가정용) ('21년: 295)
- 가 스(UZS/m³):('21.8월) 1,000 → ('22.8월) 1,000(0%) (※산업용) ('21년: 1,000)  
( '21.8월) 380 → ('22.8월) 380(0%) (※가정용) ('21년: 380)
- 가솔린(UZS/ℓ):('21.8월) 8,200 → ('22.8월) 12,000(31.7%) (※Ai-95 기준) ('21년: 10,200)
- 디 젤(UZS/ℓ):('21.8월) 9,100 → ('22.8월) 15,200(40.1%) ('21년: 9,500)

## 2. 에너지·인프라 관련동향

### □ 아프가니스탄, 우즈베키스탄 전력 수입 관련 채무 전액 상환

- 8.1. 에너지부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공급한 전력량은 21.5억kWh이며, DABS(Da Afghanistan Breshna Sherkat: 아프간 국영전력회사)가 전력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발표  
※ 아프간 에너지·수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지불해야 할 전력 거래대금이 1억불 이상 연체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 은행 업무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(5.19.)
- 우즈베키스탄 국가전력망공사(NEGU)와 DABS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22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될 총 전력량은 22.1억kWh이며, 8.1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은 7.7억kWh으로 DABS는 전력 거래대금을 체계적으로 지급할 예정

## □ 중국~키르기스스탄~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계약 9월 체결 예정

- 8.2. 제1차 우즈베키스탄-아제르바이잔-튀르키예 외교통상교통 장관회의 계기 노로프 외교장관은 9.15~16일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상하이협력기구(SCO) 정상회의에서 중국~키르기스스탄~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관련 3자 문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발표
  - ※ 9.14. SCO 사마르칸트 정상회의 계기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, 중국과 동 철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
- 동 철도 회랑과 트랜스코카시아(Transcaucasian) 회랑을 연결함으로써 관련 국가 간 단일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무역 통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
  - ※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으며, 여러 철도 경호가 제시되었지만 접근성, 비용 등 문제로 합의 도달 지연

## □ 아시아개발은행(ADB), 타슈켄트주 식수 공급 개선을 위해 1.61억불 할당

- 8.4. '아시아개발은행(ADB)이 참여하는 타슈켄트주 식수 및 수도 시스템 구축 및 재건(3 단계) 프로젝트' 시행 방안에 대한 대통령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, 이를 통해 타슈켄트주 내 △식수 및 수도 공급설비, △위생, 보건, 환경 상태 등 개선될 예정
- 5년(2022~2027년) 동안 시행될 동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약 1.86억불 중 1.61억불은 ADB 대출(상환 기간은 5년의 유예 기간 포함 25년), 24.8백만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충당

## □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석유 수입국

- 8.12.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, 우즈베키스탄은 금년 1~6월간 35.9백만불에 달하는 60.6백만리터 휘발유를 수입하였으며, 주요 석유 수입국은 △러시아(48.8백만리터), △투르크메니스탄(11.7백만리터) 등
- 우즈베키스탄의 금년 6개월간 휘발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1.8% 증가한 56.27만 톤이며, 국내 기업은 평균적으로 월간 약 9만톤의 휘발유를 생산

## □ 사우디아라비아, 우즈베키스탄에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

- 8.18.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기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사우디 에너지부 및 기업 간 120억불 규모 협약 체결
  - ① (ACWA Power) 카라칼파크스탄 내 1.5GW 풍력발전소 설립 협약서

- ② (ACWA Power - Air Products) 우즈베키스탄의 녹색 수소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 협약서
- ③ △재생에너지, △천연가스, △수력발전소, △에너지 설비 생산 현지화 등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복합단지에 대한 사우디 측의 향후 5년 100억불 규모 투자 의향서

□ 우즈베키스탄-아제르바이잔, 에너지 협력 확대 로드맵 체결

- o 8.29. 아흐메드하자예프 에너지부 제1차관과 샤흐바조프(Shahbazov)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로드맵에 서명
  - 동 로드맵은 △공동 실사팀 구성, △우즈베크 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, △탄화수소 분야 협력, △에너지 분야 상호투자 장려, △민영화 사업 참여, △우즈베크 석유가스공사(Uzbekneftegaz)와 아제르 기업 SOCAR 간 파트너십 확대 등 총 30개 협력 방향을 포함. 끝.